

용상골 작은 도서관 개관식

아파트 단지에 도서관이 개관해 3천여명의 주민들이 마음껏 독서할 수 있게 됐다. '도서관이 있는 아파트'는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위치한 대방사인빌아파트다.

이 아파트에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용상골감리교회(담임목사 권정현)와 아파트공동체의 협약으로 가능하게 됐다.

6월24일 오후2시 아파트 단지내 사용하지 않는 경비실을 이용해 꾸민 작은 도서관 앞에서 개최된 개관식에는 아파트관리소장과 각 공동체 대표와 주민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권정현 용상골 감리교회 목사는 "오늘 개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파트 주민여러분과 공동체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 도서관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옥 부녀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 회장은 어릴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통해 정신을 살찌우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 세계적인 회사를 세웠다"고 밝히고 "우리 대방사인빌아파트에서 새로운 빌게이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한 용상골 작은 도서관은 1천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이 3권씩 대출할 수 있다.

용상골 작은 도서관 ব্যবস্থাপনা 장로는 1일 이용자 2천여명의 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도서관장으로 책 선정은 물론 주민들의 독서욕구를 파악하여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방사인빌아파트 주민의 독서문화 기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위치한 대방사인빌아파트에서 6월24일 오후2시 단지내 사용하지 않는 경비실을 이용해 꾸민 작은 도서관의 개관식이 개최됐다.

아름다운 동행 위한 축제 한마당

2008 경기북부 다문화가정 취업박람회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대신하여 이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정취업박람회가 6월 28일 오전10시 동남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대신하여 이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정취업박람회가 6월 28일 오전10시 동남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주민과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재용 이사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마음속에 간직해 둔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을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내 다문화 가정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의 계기가 되어 정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포천시에서 박람회 유치와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노고하신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이강림 의장은 "중소기업은 잠재능력이 풍부한 결혼 이민자를 취업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결혼이민자도 빠른 정착으로 우리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업의 장, 체험의 장, 도전의 장, 화합의 장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취업의 장에서는 운동장에 설치된 취업부스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나온 30여개의 기업체와 구직자의 면접을 통한 현장 채용과 다문화가정의 고충상담과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포천시소흘읍사무소, 대한적십자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여성부와 포천시가 후원해 마련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초질서지킴이운동 한마음 결의대회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 6월19일 여성회관에서

(사)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업)는 6월19일 여성회관에서 기초질서지킴이운동 한마음 결의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8년을 법질서 확립 원년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룩기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으로 국제화, 세계화속에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무질서가 남

아 있어 국가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국민의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해 이재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 김영자 포천시의회 의원, 이병업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과 관내 기관단체장 및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는 6월19일 여성회관에서 기초질서지킴이운동 한마음 결의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목회 단상

신중(慎重)가치



김창성
네오신교회 목사

요즘 사람들은 비만으로 인해 서 체중과의 온갖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소위 다이어트 식품, 헬스기구, 운동으로 소위 별보기 운동 등 별 용어들이 등장하고있다.

사람은 무게로 따져서 가치를 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반드시 무거워야만 좋은 것이 아니고 가벼운 좋은 것도 아니다. 물질 문명(文明)이 휩쓰는 선진 사회에서는 역시 사람도 물질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구의 종류나 일상의 장신구(裝身具), 사용하는 음식의 값어치로 보아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잘못된 가치 기준이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한국말은 좋은 격언이다. 아무리 작아도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진가는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집트의 여왕 질세의 미인이 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작고 무게가 가벼운 여성이었음이 틀림없다. 클레오파트라는 시저 앞에 나갈 때 자기 몸을 양탄자로 돌돌 말게 하고 양탄자와 자기를 균인 한 사람에게 메고 가 시저 앞에서 풀어놓게 하였다. 이런 기발한 인사에 시저가 놀라 버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가벼운 여자였음을 틀림 없는 것 같다.

가볍고 무거운 것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속에 들어 있는 자질(資質)과 인격(人格)으로 따지는 개념이므로 신중(慎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량(重量)을 남에게 인정받을만한 실력(實力)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잠언서 11장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의 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가르치신다.

문의) 031-532-2489

미 2사단과 좋은 이웃 콘서트

지역주민 불편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평소 훈련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생각에 주한미군 2시간 210포병여단(여단장 맥커

어안 대령)은 6월20일 오후5시부터 관인면 문화센터에서 콘서트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주한미군 2사단, 미2사단 군악대, 동송읍, 관인면이 주최하고 210포병여단, 주한미연합 위문위원회에서 후원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콘서트 관람을 통해 주민과 가까워지기 위한 이번 콘서트에는 박병교 관인면장과 김종일 동송읍장을 비롯해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먹거리와 함께 한 볼거리 자리에 참가한 주민들은 미군 군악대 밴드의 연주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콘서트를 개최한 미군 부대는 평소 원어민 영어교실을 열어 미국 현지 대학에서 영어 관련과목을 전공할 병사와 카투사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한미군 2시간 210포병여단은 6월20일 오후5시부터 관인면 문화센터에서 콘서트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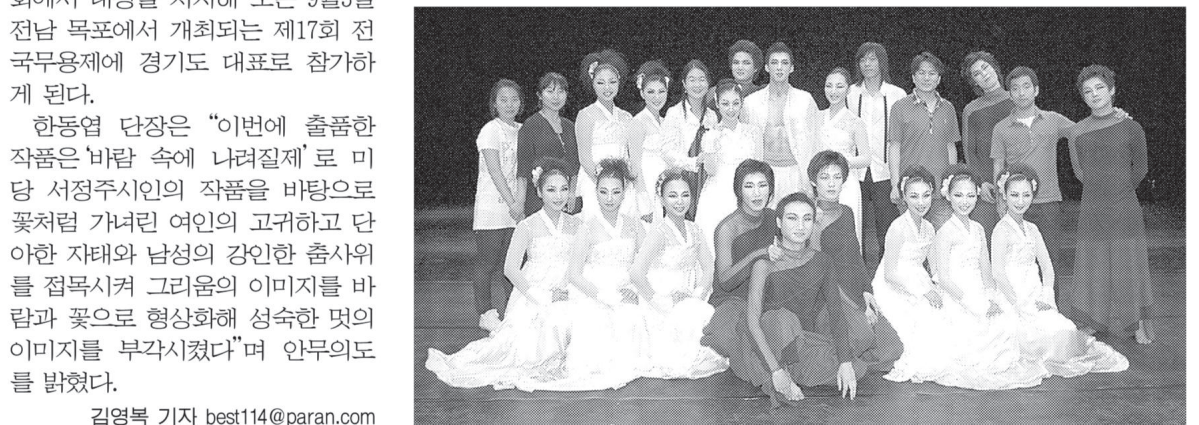
대진대학교 CEO과정 총동문 체육대회



대진대학교 CEO과정 총동문회(회장 신현구)는 6월28일 대진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개최식에 이어 청백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총동문회와 대경회(총장배 잔여어금), 13기 동문일동, 14기 동문일동이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동업무용단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 대상 수상



한동업무용단(단장 한동영)은 6월12일 안양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오는 9월3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전국무용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동영 단장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바람 속에 내려질제'로 미담 서정주시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펼쳐낸 가녀린 여인의 고귀하고 단아한 자태와 남성의 강인한 춤사위를 접목시켜 그리움의 이미지를 바람과 꽃으로 형상화해 성숙한 멋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안무의도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동업무용단(단장 한동영)은 6월12일 안양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오는 9월3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전국무용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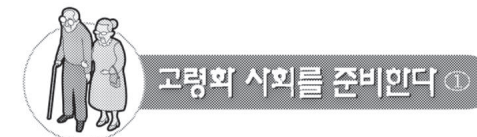
한동영 단장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바람 속에 내려질제'로 미담 서정주시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펼쳐낸 가녀린 여인의 고귀하고 단아한 자태와 남성의 강인한 춤사위를 접목시켜 그리움의 이미지를 바람과 꽃으로 형상화해 성숙한 멋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안무의도를 밝혔다.

제27대 이명선 이명연장 취임식



제27대 이명선 이명연장 취임식이 6월19일 오후3시 이명연 교육문화센터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명장은 1957년12월25일 영북면 운현리에서 태어나 영북초등학교, 영북중학교, 포천중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5월7일 영북면에서 공직에 입문해 신북면, 내촌면, 새마을과, 보건소, 재무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도시과, 회계과 등 주무담당과,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으로 근무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따라서 본지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포천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연재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수가 급증(노인의 14.8%)했다. 특히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요양보호사 간의 장기화(평균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노인방임, 유기, 가정파탄 등)가 있어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요양 시설, 요양병원 등 유료시설 이용이 월100만~25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과중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 요인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안 요인을 제거, 예방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추진되었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회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수혜자의 요양판별기준 미흡, 영리 단

간호 및 검사관련 업무, 투약관리지도, 교육 훈련, 건강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을 제공한다.

다섯째, 주야간보호이다. 이 서비스는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센터에 입소시켜 식사, 간식, 일상생활보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여섯째, 단기보호 서비스는 가족의 휴식, 휴가, 외출 등으로 단기간(1회 이용 가능 기간은 90일)이며, 연간 급여일수는 최대 180일) 어르신들을 돌볼 수 없을 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곱째, 복지용품 대여사업으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를 구입 할 수 있고 대여 또한 가능하다.

본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수혜대상자들의 다양한 부분(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을 종합적으로 판별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정한 대상자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어르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전문 인력 또한 양성, 훈련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하여 1세대 어르신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2세대인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세대인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포천의 노인 인구가 경기도에서 5위안에 뽑힐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다. 또한 시설 또한 적지 않은 수가 있다. 이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포천의 사회복지 인식도 및 관심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시대에 변화된 제도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것이 각각, 요소 요소에 대해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급하게 변하는 우리사회의 흐름을 깨닫고 우리들의 노후,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신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성명: 534-4777, 534-8880